

“에스테틱 피부과학 노하우 담았다”

은성글로벌 셀뮬러

의료기기 제조·판매 기업인 은성글로벌이 화장품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0년 흡소평에 첫 룬칭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브이풀'에 이어 자사 브랜드 셀뮬러 라인을 확대하며 새로운 경쟁무기 장착에 나섰다. 1995년에 은성교역을 기원으로 초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수입, 판매해 온 은성글로벌은 1997년 은성글로벌상사로 법인전환하면서 현장에서 쓰는 영업 역량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3년 제조사업부를 설립해 본격적인 의료기기 제조, 판매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어 2017년에는 원주기업도시에 대규모 사옥(공장)을 완공한 후 은성글로벌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은성글로벌은 주로 피부미용 메디컬 장비로 사용되는 고주파, 초음파, 배륨 등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피부미용 전문장비들을 생산해 왔다. 해당 장비는 기능에 따라 피부과, 성형외과, 일반병의원, 뷰티숍 등 다양한 유통에 공급돼 왔다. 현재는 북미, 아시아, 중남미 등 전세계 70여개국에 30여 제품을 수출하고, 100여개의 파트너사를 보유 중이다. 은성글로벌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제조의 필수인증인 GMP 인증을 획득해 엄격한 공정관리로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다. 더불어 해외 수출을 위한 각국의 필수 인증들을 취득해 글로벌 규격에 걸맞은 제품을 생산 중이다. 특히 2020년 흡소평에 룬칭한 개인용 미용기기 브이풀은 출시 하자마자 국내에서 선종적인 인기를 얻으며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흡소평 외에도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공동구매 형태의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은성글로벌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에스테틱 전문숍에 입점된 화장품 브랜드 셀뮬러 라인을 확대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셀뮬러 제품의 유통망을 확장해 기존 에스테틱숍과 공



뷰티 디바이스 이어 화장품 사업 본격화
셀뮬러 미백 세럼 '블랑 브이씨 세럼' 주목
천연미백 기능성원료 알파-비사보를 함유
자극은 줄이고 흡수력은 높인 더마코스메틱
다양한 피부고민 해결 화장품 라인업 계획

식물 외에 흡소평,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병의원 등 다양한 유통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은성글로벌은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제

품 라인업(AC 라인, 비탈 라인, 블랑 라인)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피부 고민(트러블, 보습, 미백, 주름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최근 런칭한 셀뮬러 블랑 라인의 미백 세럼인 '블랑 브이씨 세럼'은 이러한 은성글로벌의 의지를 반영했다. 블랑 브이씨 세럼은 수용성 순수 비

타민C 13%와 자동성 비타민E로 구성된 2층상 구조로 안정화된 고농축 비타민 세럼으로 개발됐다. 천연 비타민 자동&오렌지 추출물, 카카두플럼 추출물과 천연미백 기능성 원료 알파-비사보롤이 함유돼 자극은 줄이고 흡수력은 높여 더 환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자랑한다. 은성글로벌에 따르면 블랑 브이씨 세럼은 에스테틱 미용기기 제조회사의 피부과학 노하우와 에스테틱에서 직접 사용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력, 그리고 피부를 먼저 생각하는 연구진들의 연구 노하우가 결합된 결정체이다. 이미 이 제품은 출시와 함께 인플루언서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셀뮬러의 다양

한 유통 확장에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성글로벌 장공열 본부장은 "셀뮬러는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해 에스테틱 전문기업의 피부과학 노하우를 접목한 브랜드"라면서 "은성글로벌은 앞으로 에스테틱 미용기기 회사로 쌓아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더마코스메틱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블랑 브이씨 세럼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은성글로벌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으로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자극 없이 흡수력을 높인 효능을 장착했다"고 덧붙였다.

최지홍 기자 jh9610434@meconomynews.com

“소비자에게 만족 주는 제품 생산할 것”

닥터제이코스

닥터제이코스는 전 세계 18개국 23개 도시 1만 2,000여명의 빅데이터로 구축된 81가지 피부유형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화장품 기업이다.

전세계 18개국 23개 도시 1만 2천명 빅데이터 보유
2021년, 81개 피부유형기반 통해 맞춤화장품 개발
자체 특허기술과 생산라인 구축, 라이징 스타 부상
피부고민 인공지능형 맞춤화장품 플랫폼 개발 착수
2022년 하반기 피부건조 등 피부 고민 신제품 준비

닥터제이코스 김효정 대표는 앤프라니 피부과학연구소 개발 팀장을 시작으로 SKIN79 연구소장, 웅진릴리에프 C&D 실장, 주비 코스메틱 사업본부장,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을 거치며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회사 설립 직전 극무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글로벌 피부특성은행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진 빅데이터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됐다. 김 대표는 해당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진단 솔루션으로 연결할 경우 다양한 피부 고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 대표는 이후 3년간 시스템을 더 구체화하는 업무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8개국 23개 도시 1만 2,000명 피부특성 DB를 확보했고, 81가지 피부유형별 맞춤 진

단솔루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첫 제품은 2021년 나왔다. 글로벌 소비자의 대표적인 피부고민인 피부노화 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기술을 적용한 벨벳글로우 2종과 에스비펩 5종 앰플, 피토일드 클렌저를 론칭했다. 벨벳글로우 2종은 글로벌 피부 특성 연구를 바탕으로 전세계 소비자의

트릭스 DoctorTecTM KIS' 특허기술(제10-2263479호) 등이 있다. 소비자들은 닥터제이코스의 피부유형별 맞춤 진단솔루션을 통해 자신의 피부고민과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 받고, 단계적인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닥터제이코스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인한 잦은 피부트러블 현상에 대응 가



매 중이다. 이 제품은 안전한 필링 기술로 기존 부작용이 많았던 케미컬 필링 시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1,000여곳의 피부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닥터제이코스 김효정 대표는 "코로나, 미세먼지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야 하는 중요한 위드코

로나 시기가 다가왔다"면서 "이제는 각기 다른 피부 환경에 처해진 개인 소비자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화장품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는 개인 맞춤화장품 시대는 벌써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의 한계와 실제 환경에 따른 피부분석과 그에 따른 최적 솔루션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과 AI 인공지능 기술, 사물인터넷 IOT 기술의 접목은 화장품 산업을 한 단계 진화시키고 있다"면서 "닥터제이코스가 지향하는 화장품 산업의 미래도 여기에 있으며 확고한 세계인들의 피부 빅데이터와 여기서 도출된 피부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홍 기자